

# 지역 노동계, '광주형일자리' 위축 우려

## 울산형·구미형일자리 전기차 부품공장 선정

### 전국 첫 모델 광주형일자리 정치적 차별받아

광주지역 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이후 후속 모델인 울산형일자리 등 타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인해 광주형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지역 노동계는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 빛그린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광주시가 추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노동계의 우려에는 최근 타결된 울산형일자리와 구미형일자리가 광주형일자리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인 설립 초기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향후 친환경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울산형일자리와 구미형일자리가 공고롭게도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울산형일자리에 33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구동모터

와 배터리 시스템 등 중요 부품을 생산하며 800여 명을 신규 고용한다.

LG는 구미형일자리에 5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한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난 1월 협약을 맺을 당시 광주형일자리가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에 친환경 부품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가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업 투자금은 가장 적어 위화감을 낳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에 참여하는 현대차의 투자금은 437억원인 데 반해 울산형일자리와 구미형일자리에는 3300억원, 5000억원에 달한다.

광주형일자리가 전국 첫 모델로 추진되다 보니 오히려 정치적,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지역 노동계가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형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실질임금에서 광주와 울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광주에 겨우 7만대 생산하는 자동차공장을 짓겠다고 하자 울산의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인들까지 합세해 광주형일 자리를 매도했다"며 "이 같은 정치공세로 등장한 꿈수가 울산형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울산형일자리가 상생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기근 전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장은

"현대모비스는 전원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일자리의 대명사"라며 "울산형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선동하거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상생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행위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울산형일자리처럼 처럼 상생을 파괴하는 강자독식, 정경유착형 일자리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광주 동구가 12일 용산지구에 육아포인트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 신한희재단, (사)조선대학교사회복지회,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후원 전달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지난 6월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 조성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용산지구 LH행복주택단지 내 69.97㎡ 규모로, 신한희재단이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했으며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게 된다.

## 서구 양동, 여름방학 요리교실 운영

광주 서구 양동주민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풍·공감·행복을 나누는 "여름방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양동은 지역 특성상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에 양동에서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요리교실을 제안해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요리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관내 초등 5-6학년, 중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요리교실은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을커뮤니티센터인 꿈꾸는 양동 놀이터에서 운영된다.

## 남구 달외미 주변 골목길 환하게 밝아진다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 도로변과 골목길 주변 노후 보안등이 LED 보안등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월산동 달외미를 일대에서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총 4,79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낡고 노후한 81개소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보안등 설치에 필요한 4곳에 LED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남구 월산동과 서구 양동 경계선인 닭전머리 인근에 위치한 구성로 20번길 일대 23곳의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에는 125W급 LED 보안등을 새로 설치해 야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밝은 도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북구, 전남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 북구가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와 함께 지역 발전 및 문화진흥 활성화에 나선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대학자원 재능기부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 지역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연계 등이다. 이에 북구와 전남대학교는 올 12월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북구 경관디자인 벽화사업'을 실시하고 8회에 걸쳐 '주민참여 도자리 야외영화제'를 개최한다.

## 광산구, 먹거리 생명학교 개강

12일 광주 광산구가 '순환과 공생의 광산구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구청에서 '광산먹거리 생명학교'를 개강했다.

이날 생명학교 첫 강연에 나선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상생 먹거리 분야 활동가와 광주시민 30여명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먹거리와 푸드플랜'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명학교는 19일 농산물유통공사 김기태 본부장의 '투·트랙 농정과 푸드플랜 추진 전략', 26일 나주로컬푸드센터 홍영석 센터장의 '푸드플랜 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나주시 사례', 다음달 2일 지역파트너플러스본부 나영산 본부장의 '완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례와 교훈', 같은달 9일 민관 전문가·활동가의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향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 토론회'로 이어진다.

임형택 기자

## 광주시,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의 수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한 분수, 연못, 폭포 등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상무시민공원, 운전호수, 쌍학어린이공원, 우산근린공원 등 공공과 민간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사 항목은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가지다. 검사 결과 오염물질에 의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을 조치토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토록 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정인화 의원, 양봉산업 지원법안 국회 통과

### 꿀벌 보호·양봉산업 지원

정인화 의원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발전을 돕는 독립된 제정법을 최초로 입법했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민주당)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제도개선을 위해 '양봉산업지원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5일에는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양봉산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

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양봉산업지원법의 제정으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 김기태 도의원, 명장 지원 조례 제정 전문가 간담회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최근 한국품질경영협회 전남지회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명장 선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간담회에서는 시·도와 차별화된 공인숙련기술자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명장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김기태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지원하여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기태 의원은 "앞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숙련기술자가 우대받는 시대가 더욱 앞당겨져야 전남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며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육성과 기술전수

가 맞물려 미래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장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는 입법 준비 중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명장의 숙련기술 산학연계 방안 등 폭넓은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김승호 전남동무취재본부장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가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1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월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1577-10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